

鄉歌의 本質

저자 (Authors)	崔喆
출처 (Source)	모산학보 9 , 1997.5, 171-191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인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14358
APA Style	崔喆 (1997). 鄉歌의 本質. 모산학보, 9, 171-19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1 13: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鄉歌의 本質

崔 喆*

目 次

- I. 머리말
- II. 鄉歌와 詞腦歌의 말뜻과 범위
- III. 향가의 발생과 창작시기
- IV. 향가의 배경과 사상
- V. 향가의 형식과 구조
- VI. 향가의 표현
- VII. 맺음말

I. 머리말

향가의 본질이란 달리 말한다면 향가란 어떤 노래인가 라는 총체적 물음에 대한 질문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같이 표현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논의할 거리는 상당히 번잡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가의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을 논의하겠다.

첫째, 향가의 발생과 연원 및 그 창작시기

둘째, 향가 형성의 배경과 사상, 기능

셋째, 향가의 형식미, 구성에 대한 문제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 延世大

『삼국유사』와 『균여전』에서 논급된 향가관련 기록에 중점을 두고 이런 문제들을 해석해 보겠다.

II. 鄉歌와 詞腦歌의 말뜻과 범위

향가 문학은 이야기와 노래로 구성의 틀이 짜여 있다. 그 이야기와 노래의 대부분은 불경에서 기인한 것이고, 불교를 넓게 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어려운 불경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흥미 있게 소화시키려는 데서 파생한 문학이 향가이다.

향가와 사뇌가란 용어가 나타난 문헌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균여전』 등이다. 그런데 이들 문헌에는 이들 용어에 대한 말뜻을 구별지워 분명히 드러냈지만, 후대 논자들이 그 속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의 명칭으로 쓰임에 혼동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뇌의 말 뜻에 대하여는 이를 鄉札 표기로 인지했고, 또 그것의 풀이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다.

먼저 향가의 개념을 규정한 그간의 설을 들면 아래와 같다.

향가는 시대로 보면 신라, 표기상으로는 향찰, 그리고 이들 노래의 형식은 대개 4구, 8구, 10구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인 이로는 오꾸라(小倉進平)·양주동·조운제·지현영·정병욱·장덕순·조동일을 들 수 있다.

다음 鄉歌의 語義를 정의하면, 鄉은 중국에 대한 우리 나라를 지칭한 것이므로 鄉歌는 곧 우리 나라의 노래란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鄉이란 말은 中國에 대한 자기 비하나 천속함을 드러낸 말이기 때문에 가히 쓸만한 용어가 아니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병욱은 『향가의 역사적 형태론 시고』(1952)에서 향가의 개념을 광·협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광의로는 중국 시에 대한 우리 나라의 독특한 노래, 협의로는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는 사이에 제작된 이두식 문자로 표기된 시가로 풀이했다.

필자는 『삼국유사』나 『균여전』 등에 쓰인 향가의 용례를 찾아봄으로써 이 문제에

해답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不閑聲梵 …雖用鄉歌可也”(『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솔가)

“名又當僞亡妹營齋作鄉歌祭之”(위와 같은 문헌)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위와 같은 문헌)

“釋永才性狷犢 不累於物 善鄉歌”(『삼국유사』 권5, 英才遇賦)

“王素與角干魏弘通 至是常入內用事 仍命與大矩和尚 收集鄉歌 謂之三代目”(『삼국사기』 羅記 11. 眞聖王 2년)

“八九行之唐序 義廣文豐 十一首之鄉歌 詞清句麗 其爲作也 呼稱詞腦 司欺貞觀之詞”…“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鄉謠”(『균여전』 譚歌現德分)

“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三句六名”(『균여전』 譚歌現德分)

위에 인용한 글에서 향가의 쓰임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 노래’란 뜻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鄉’의 대칭으로 ‘唐’을 의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노래가 아닌 우리 나라의 노래를 범칭해 향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유한 문자를 갖지 아니했으므로, 우리 나라 노래는 향찰로 표기함을 전제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가란 향찰표기로 된 우리 나라 노래를 범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개념을 정하고 나면, 우리 나라 시가에서의 향가 위치 및 범주는 분명히 드러나리라 본다. 『삼국유사』에 적힌 14수 노래와 『균여전』의 보현십원가는 의당 향가 범주에 속할 것이고, 향찰표기로 된 고려의 ‘悼二將歌’ 역시 향가이다. 향찰이야말로 당대 유일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였다.

향가란 용어가 중국 시가에 대한 대칭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에서 붙인 흔적은 없으며, 정감적인 뜻에서 붙여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鄉言·鄉語·鄉札·鄉謠·鄉歌라는 말 속에는 우리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균여전』의 기록에서는 주

체적이고 자주적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쓰여진 사실을 알 수 있다. “唐詩가 唐나라 말로 짜여졌듯이 향가는 향어로 엮어졌다”는 표현에서도 중국과의 대등한 자리에서 우리 노래의 독자적이고 독립된 자리를 설명하고 있다. 池憲英은 이같은 사실을 陸史의 청표도란 시에서 ‘내고장 七月’의 ‘내고장’과 대비해 ‘鄉’을 설명했다.

향가와 사뇌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문제를 부보기 위해 문헌에서 쓰인 사뇌가의 용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王曰朕皆聞師讚者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삼국유사』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始作兜率歌 有嗟辭詞腦格”(『삼국유사』 권1 駕禮王)

“大王誠知窮達之變 故有身空詞腦歌”(『삼국유사』 권2 元聖大王)

“其序云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균여전』 歌行化世分)

“師之外學 尤關於詞腦(意精於詞 故云腦也) 依普賢十種願王著歌一十一章”(『균여전』 歌行化世分)

위의 사뇌가 용례를 볼 때, 사뇌가는 반드시 개별 작품과 연관되어 시가상 작품의 갈래를 지시하고 있다. ‘향가’란 명칭이 우리 나라 시가를 범칭했음에 반해 사뇌가는 그렇지 않다. 兜率歌(駕禮王 시가), 讚者婆郎歌, 身空歌, 균여의 향가를 갈래지어 사뇌가라 칭했던 것이다. 곧 사뇌가를 향가의 한 갈래로 본 것이다.

“八九行之唐序 義廣文豐 十一首之鄉歌 詞清句麗 其爲作也 呼稱詞腦”에서 향가는 唐序에 대한 對句이며, 8, 9행은 十一首의 對句다. 均여가 지은 11수의 향가(우리 나라 노래) 보현십원가는 사뇌라는 시가 갈래에 속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其序云 夫詞腦者”의 其序란 바로 均여의 보현십원가 11장 序를 의미한다. 均여의 보현십원가가 사뇌가임을 지칭한 것이며, 이를 향가라 한 것은 우리말로 표기한 우리 나라 노래(唐詩가 아닌)임을 뜻한다. 이처럼 향가와 사뇌가 용례를 볼 때 쓰임의 차이가 확연히 구별된다.

다음 문제는 '사뇌'란 말 뜻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의 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사뇌를 향찰 표기로 보고 이를 해독한 것이다. 양주동을 비롯하여 모든 향가 해독자들이 사뇌를 향찰 표기로 보았다. 그런 근거로는 사뇌의 표기가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思內, 詩腦(詩腦) 詞腦 등으로 각기 달린 표기된 사실에서, 이를 향찰 표기로 보고 해독하였다. 해독의 차이는 있지만 양주동은 '신'의 借字로 보고 그 뜻함을 東方, 東部, 東土라 하여, 이는 곧 우리 나라를 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홍기문은 그의 『향가해석』에서 사뇌의 詞를 음으로 읽고 腦를 뜻으로 읽으면, 시골 곧 향의 뜻이 된다고 보았다. 사뇌는 다시 두 자를 모두 음으로만 읽어서 유사한 음의 詩腦, 思內로도 썼던 것이다. 물론 그 뜻함은 우리 나라 노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흥은 詞를 사, 시로 일고 骨를 훈으로 새겨 '골'로 본 것인데, 시골=鄉의 등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김선기는 '시나위'로 풀고 그 뜻을 '東歌'라 했고 몽고말에서 근원을 찾았다.

둘째는, 『균여전』에서 詞腦를 설명하는데 이를 한자의 뜻으로 풀이했다. "意精於詞 故云腦" 이 글의 내용은 "노래의 뜻이 노래 말 가사가 정심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腦라고 이른다"고 했다. 곧 사뇌란 노래 말에 담긴 사의가 매우 깊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詞淸句麗 역시 詞腦를 뜻으로 본 풀이다. 이 점은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서 경덕왕이 충담에게 "기량을 찬미한 사뇌가는 그 노래 내용의 뜻함이 매우 높다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한 '其意甚高'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사뇌 장르의 특성을 지적한 말로도 풀이된다. 이 노래 말 속에는 불교의 높고 깊은 경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사뇌가는 불교 사상과 관련되는 시가의 한 양식이다.

필자는 향가의 한 갈래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뇌가라고 보았다. 이는 우리 말(鄉札)로 적혔고, 10줄의 시행 구조에다 3단의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지며, 마지막 단락에는 반드시 차사가 붙는 형식상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뇌의 내용은 불교 사상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균여의 보현십원가를 비롯하여 『삼국유사』의 기파

가, 왕생가, 도적가, 득안가, 누이가, 혜성가, 백성가는 사뇌가 장르에 속하는 불교 사상을 드러낸 작품이다. 필자는 향가의 갈래를 크게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사뇌가이며, 다른 하나는 민요이다. 그리고 향가의 범주로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말로 불린 노래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Ⅲ. 향가의 발생과 창작 시기

한문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한시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중국의 한시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도 한시를 짓고 숭상하였다. 이런 사실은 지금 전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보인다. 을지문덕이 지었다는 于仲文에게 준 시라든가 신라 진덕여왕께서 지었다는 오연의 한시인 太平頌은 한시가 이 당시에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구려 유리왕의 黃鳥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 가운데 고구려 장수왕 2년(414)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보여주는 대작으로 이 비문에 적힌 글줄은 연대가 확실한 최초의 작품이라 하겠다. 이 비문은 왕의 공적을 수식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웅혼한 필체로 적어 놓고 있는데, 이 점은 이 비의 가치와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또한 근년에 다시 발견된 충청북도 증원군의 증원비문에서도 고구려의 웅혼 우월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같이 삼국 시기 초엽에 이미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자로 글을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말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글자를 새로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노래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이런 노래를 일러 이 시기 사람들은 향가라 했는데 이는 중국의 한시와 구별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특히 신라에는 향가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진성여왕께서는 당시 신라에 널리 알려지고 불린 향가를 모아 『三代目』이란 향가집을 집성케 하였다. 『三代目』은 우리 나라 최초의 가집 이름이다. 가집의 이름

에 '三代'를 붙인 것은 무슨 뜻인가? 目은 곧 集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삼대목』을 논의한 『삼국유사』 진성여왕 2년 조의 기록에서 밝혀졌다. 修集鄉歌가 곧 그것이다. 三代란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三代를 향찰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 (정열모), 그렇다고 신라 三代를 三代로 나눈 것과 연계시켜 이를 해석함도 잘못이다. 결국 三代란 万代, 全代, 全期와 같은 의미로 만엽집의 명의와도 같은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삼대목』의 名義는 일본의 古代歌集인 『萬葉集』의 명의와도 같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노래집 이름을 두 나라가 같은 원리에서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삼대목』의 三은 萬과 통하고, 代는 葉과 그리고 目은 集과 같은 의미이다. 신비하게도 일본의 고대가요와 만엽집에는 우리의 옛말로 쓰여진 작품이 있어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삼대목』은 옛부터 지금까지 전시대에 걸친, 곧 우리 나라 (신라) 전대에 걸친 향가집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자손 만대에까지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전하라는 축복의 뜻도 담겨 있다. 이러한 『삼대목』의 편찬을 통해 신라 시기에는 향가가 많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식에 쓰이는 범패만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교키엔 부족했고, 대중에게 불교를 널리 퍼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유한 음악의 이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다. 중 양지 조의 공덕가는 불교 전교에 노래가 이용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나 『균여전』에 따르면 향가를 짓게 된 까닭은 중국 시가에 상응하여 우리의 주체적 생각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자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향가 시형이 새롭게 태어나서 크게 성하게 된 것은 불교를 전교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재래의 우리 음악과 우리말로 불릴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 경덕왕이 인도의 음악인 범패가 아닌 향가라도 좋다고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원효는 불교를 널리 퍼는데 있어 그 한 방법으로 노래를 이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삼국유사』 元曉不羈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연히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탈바가지를 얻어 보니 그 형상이 괴이했다. 본을 따서 놀이 용구를 만들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사람은 곧 생사를 벗어난다고 말하였는데 따라서 이를 無碍人이라 불렀다. 드디어 노래를 지어 유포시켰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마을과 촌락을 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불교를 전교하고 돌아왔다. 농가와 촌가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리고 또한 외우게 하였으니 참으로 원효의 영향이 컸다.” (『삼국유사』 원효불기.)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향가였다. 향가를 이용하여 불교를 전교했던 모습을 功德歌, 兜率歌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이나 기원을 향가를 통해 호소했던 사실을 득안가나 왕생가에서 볼 수 있다. 죽지가·월명 도술가가 미륵경을 속강한 것이라면, 왕생가·우적가·제망매가는 정토경을, 득안가·무왕 이야기는 관음경을 속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균여의 향가인 보현십원가는 온전히 華嚴宗歌로서 普賢行願의 사상을 고취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균여의 향가에는 대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높고 낮지도 않은, 또한 깊지도 얕지도 않은 중생의 소박한 마음에서 우러난 대원이었다. 균여의 마음이 곧 보현의 마음이고 보현의 마음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불렸고 누구나 손쉽게 부처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보현십원가를 우리말로 표기했고, 또 우리말로 부른 것도 대중 전교의 방법을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균여 저술 60여권 중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마음에서 방언 이두로 주석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균여전』에 따르면 균여의 향가를 이름해 사뇌가라 하였고, 詞가 맑고 句가 고와 당나라 初期(貞觀)의 詞와 견줄 만큼 뛰어나며, 정밀하기는 賦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 惠帝나 明帝 때의 賦와 견줄만 하다고 하였다.

『균여전』에서는 詞腦歌를 향가의 한 갈래로 보았고 균여 향가는 바로 사뇌 갈래에 속함을 밝혔다. 『균여전』에서는 균여의 향가 보현십원가를 일러 특히 사뇌가라

칭했고, 『삼국유사』에도 讚者婆郎詞腦歌라 부른 노래가 있는 바 사녀는 향가의 한 갈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녀가의 형식상 특징은 세 단락의 의미 구조와 嗟辭를 지니고 있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녀가는 불교 사상에다 뿌리를 두고 지어진 노래며, 차사를 갖춘 10행시며,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성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에 국왕까지도 이 노래를 이해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녀가는 신라에서 고려 중엽까지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황주까지, 시기로나 지역으로 두터운 층을 이룬 우리의 대표적인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지금 전하는 작품의 수효는 얼마 되지 않으나 이 시대에 크게 유행한 대표적 시가란 점에서 향가는 우리 시가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하겠다.

IV. 향가의 배경과 사상

향가의 배경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 역사, 사상, 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논지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향가의 지배적인 사상과 배경은 역시 불교라 할 수 있다. 향가의 배경과 사상은 불교와 연계시켜 이해 되어야 할 것 같다.

향가 개개 작품들의 창작 연유를 알리는 이야기는 일연의 『삼국유사』에만 기록 되어 전한다. 따라서 일연의 『삼국유사』의 성격과 편찬 동기를 찾아 보는 일은 신라 향가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그 명칭이 시사하듯 史記類의 正史와는 달리 역사 이면에 숨어 있는, 민간에 돌아 다니는 傳說, 雜事, 漫錄 등을 포함한 雜史의 성격을 지닌다. 일연은 그의 自敘에서도 『삼국유사』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 한 예로 神異之事를 서술함에 있어 그것이 조금도 奇異할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는 일연 자신의 관점에 따라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채록한 것

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일연의 취향과 신분, 성격, 입장이 잘 반영돼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싶다. 『삼국유사』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중심, 왕대 중심, 경주 중심, 김씨 중심, 불교 중심, 곧 일연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布敎라는 명제하에 불교의 신이성을 강조한 이야기가 많다. 말하자면, 『삼국유사』는 불교 관계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향가 관련 이야기들이란 불교의 전교와 매우 밀접한 강론집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향가는 불교 사상을 담고 있다. 특히 현존 향가만을 볼 때 이 노래는 불교 포교 담과 관련된 찬불가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소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향가는 신라 노래로서 당대에 크게 숭상되었다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의 표현일 수 있다.

향가 문학이 이야기와 노래로 구성의 틀이 짜여진 것은 불교를 전교하는 방법이 강론과 강창의 두 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불교를 弘法하기 위해 속강승들은 俗講을 위한 일정한 대본을 갖고 있었다. 왕생가, 도술가, 누이가, 득안가, 안민가, 죽지가, 서동가, 원가와 그 이야기 형식의 강론들은 그러한 속강승들이 썼던 강창 구조로 된 단형의 대본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향가에는 불경 또는 불경고사를 속강한 노래가 있는가 하면 寺院 緣起(망해사, 미륵사, 단속사)나 호국신앙(죽지가, 안민가, 도술가, 혜성가) 또는 불교적 출생담(죽지가, 혜공왕, 서동)을 담은 노래들도 있다.

V. 향가의 형식과 구조

『균여전』에서 최행귀는 균여의 보현가의 시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然而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於三句六名 論聲則隔若參商 東西易辨 據理則敵如矛盾 強弱難分”(『均如傳』譯歌現德)

향가 시형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바로 최행귀가 균여의 사녀가를 한역하면서 붙인 서문의 구절에서이다.

『균여전』의 이 구절은 전문이 ‘四六駢麗體’로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이 대목은 정연한 對句로 설명되어 있다. 唐詩가 ‘五言七言’의 古詩, 絕句, 律詩로 구성되어 있듯이, 향가는 ‘三句六名’으로 되었고, 당시가 당나라 말로 쓰여지듯 향가는 반드시 우리말로 불려진다고 했다. 그렇듯 唐詩와 鄉歌는 시형에서도 판이하다는 뜻이다.

三句六名이란 향가 시형에 대하여는 이것의 풀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해석의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들어 이 구절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그 해석 방법을 보였다. 필자는 『삼국유사』 髙禮王 때 “始作兜率歌有嗟辭詞腦格”이란 구절에서 사녀의 시형을 찾아 보았다. 일연은 사녀의 격식을 ‘嗟辭’로 보았고, 이런 차사를 지닌 최초의 작품을 도솔가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嗟辭’란 감탄의 말이며 이는 도솔가 종결귀에 보이는 감동사를 칭하는 것이다.

또, 사녀격이란 사녀가의 형식, 곧 사녀 시형의 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도솔가야말로 차사라는 사녀 격식을 갖춘 최초의 작품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열모는 『향가 연구』에서 사녀적인 차사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차사라는 것은 사녀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後句, 阿耶, 阿也, 嘆曰, 城上人, 病吟이라든지 오늘날 시조에서 볼 수 있는 구태여, 어즈버...와 같은 것만이 아닌 것이다. 사녀가나 시조에서 차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結에 해당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차사를 지니는 것이 사녀가 내지 사녀적인 도솔가의 특색이며, 이것이 있으므로 하여 3장의 구조로 되었다” (정열모, 『향가 연구』, 1965)

池憲英도

“三句六章體詩歌의 후구 머리에 ‘아으’ 또는 ‘아’ 등의 감탄사가 붙어있음

을 학계와 교육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숙지하고 있는 바이니 三句六名體歌는 감탄사(嗟辭)를 수반시키고 있는 시가라 하여도 좋은 것이다. 因하야 三章六句體歌는 차사를 지닌 사뇌, 차사사뇌라고 대칭하더라도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池憲英,〈次盼伊遣에 대하여〉, 『최현배선생 최갑기님논문집』, 사상계사, 1954)

고 하였다. 일찌기 정열모, 지현영이 차사야말로 바로 사뇌가의 형식상 특징이며, 이를 일러 ‘三句六名體歌’라 함을 지적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사뇌 격식을 차사라고 했고, 최행귀는 『균여전』에서 보현십원가를 한시로 번역하면서 이 시형의 특색을 三句六名이라 했다. 그렇다면 차사와 三句六名の 관계는 어떠한가? ‘嗟辭=三句六名’의 등식은 설정될 수 없는 것인가?

균여 향가의 차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後句	— —	공덕가	}	三 句
落句	— —	참회가, 주세가		
隔句	— —	여래가		
阿耶	— —	공양가, 무진가	}	六 名
嘆曰	— —	예불가		
後言	— —	범륜가		
城上人	— —	불학가		
打心	— —	중생가		
病吟	— —	회향가		

『삼국유사』 소재 사뇌가(기파가, 도적가, 왕생가, 득안가, 누이가, 혜성가, 백성가)는 차사를 갖고 있다. 균여의 사뇌가 11편은 전부 차사를 지니고 있다. 반면 중국의 시(唐詩)에는 향가에 보이는 차사는 없다. 중국 시와 견주어서 향가 시형의

특징은 당시(唐詩)가 당사(唐辭)로 지어지듯 우리말로 지어진 것이고 唐詩가 五言七字의 짜임으로 엮어지듯, 향가는 결미에 반드시 三句六名의 차사가 붙는다. 차사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나라 노래 곧 향가의 특징이라고 최행귀는 본 것이다. 이 구절은 唐詩와 견주어서 향가의 형식상 다름을 들어 설명한 댓구인데 五言七字에 대한 댓구로서 三句六名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言'과 '字'를 같은 의미의 '言'으로 본 점은 '句'와 '名'을 같은 의미의 차사로 본 것과는 같은 댓구의 표현법이다. '後句, 落句, 隔句'의 차사를 3句로, '阿耶, 嘆曰, 後言, 城上人, 打心, 病吟'의 차사를 6名으로 칭했던 것이다.

실로 우리 옛시가인 사뇌 시형의 특징은 바로 차사이며 이 차사를 五言七字의 댓구로 설명한 것이 바로 최행귀의 三句六名이다. 그리고 사뇌가의 차사는 후대 우리 나라 옛시가인 고려 국어가요나 시조, 가사, 현대시에까지 이어지는 한국 시가 시형의 특징이다.

지금까지 '삼구 육명'에 대한 기존의 풀이는 지나치게 句나 名의 字義를 따지거나, 또는 사뇌의 읽음새를 해체 분석하여 구성 단위, 의미 단위, 가락 등과 연관시켜서 드러낸 데에 함정이 있었다.

현존 향가는 크게 두 종류의 시형으로 나누이는데 하나는 사뇌가이고 다른 하나는 민요계 향가이다. 그것은 형식에서도 확연히 구별된다.

『삼국유사』에는 사뇌 형식을 갖춘 9편의 사뇌가가 있다 이 9편은 균여향가와 같은 형식미를 지닌다. 자수에 있어서도 85자 내외이며(80, 98, 87, 93, 79, 79, 104, 77, 90), 3단 구성과 차사를 두는 것도 균여의 향가와 같다. 『삼국유사』의 이 9편의 향가는 균여 향가와 마찬가지로 구조를 지녔고 내용도 불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어 사뇌 장르로 봄이 합당하다.

나머지 5편은 사뇌가 형식과는 다르다. 자수에서도 수로가 34자, 처용가 61자, 서동가 25자, 공덕가 26자, 도술가 37자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서동의 노래나 공덕가를 일연은 동요, 풍요라고 칭해 이미 그 당시에 이 노래의 뿌리가 민요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처용가나 도솔가는 노래 내용이 크게 3단으로 짜여졌고, 종결구에 차사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뇌시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 한가지 덧붙일 점은 향가 시형이 뒷날 시조 시형에 변체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시조가 3장 구성에 종장 첫머리에 탄사를 두는 것은 사뇌시형의 변체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보현십원가가 11수로 한 작품을 형성하는 것 역시 연시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5세기 맹사성의 사시가, 16세기 이황의 도산 십이곡, 이이의 고산구곡가 등 한 체계의 제목 아래 여러 수의 시조를 짓는 작가들이 많았다. 이것도 균여 향가로부터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시가 형식이라고 하겠다.

VI. 향가의 표현.

향가의 시적인 표현과 문학작품으로서의 미의식에 대한 해명과 표명은 먼저 이들 작품이 실린 『균여전』과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찾아진다. 一然과 崔行歸, 赫連挺 등은 향가의 각 노래들을 채록하면서 이들 노래가 지니고 있는 시가로서의 아름다움을 논의했다.

본고에서는 『균여전』과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향가의 형식미를 논의하고, 개별 작품을 통한 표현미는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하여 논급되었기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①『삼국유사』의 기록

향가의 표현기법으로서의 수사 기능을 밝힌 조목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朕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삼국유사』, 권2)

“八九行之唐序 義廣文豐 十一首之鄉歌 詞清句麗 其爲作也 呼稱詞腦”(『균여전』, 譯歌現德分)

‘기파가’의 歌意가 매우 높다는 것을 표명한 것인데, 이는 사녀가가 지닌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일컫는 의미면서 노래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지적된다.

정병욱은 『균여전』의 “詞清句麗”와 『삼국유사』의 “其意甚高”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이 말을 ‘고도한 본격적인 문학으로서, 세련된 수사와 투철한 시정신을 구비한 예술문학’이란 말로 바꿔 본다면....”

(정병욱, [향가의 문학사적 위치],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pⅡ-95)

“其意甚高”란 곧 사녀가(기파가)가 지닌 내용으로서의 심오한 경지를 설명한 동시에 표현기교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글귀로 해석된다.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 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薯蕷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乃作謠 誘群童而唱之云”(『삼국유사』 권2)

薯蕷歌는 아이들이 쉽게 노래할 수 있도록 지어진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이 노래가 지닌 표현의 간결 소박함과 쉽게 기억해서 넓게 전파할 수 있는 표현기법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민요의 간결한 짜임과 반복적인 되풀이는 향가 작품에서도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향가가 노래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송되었다는 데서도 찾아진다.

“釋良志....其神異莫測皆類此 旁通雜譽 神妙絕比 又善筆札”(『삼국유사』 권4)

良志使錫 조의 ‘功德歌’는 영묘사의 불상을 만들 때 성중 남녀들이 집단으로 부

른 불사 공덕의 노래로서 군중들이 제창하기 쉬운 간결한 짜임으로 되었다. 특히 '은다'는 말의 반복을 통해 공덕 닦으러 오는 못 사람들을 연상케 했으며 현세의 허망함을 애닦다는 간결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功德歌'와 양지는 직접 관련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지가 문장에 뛰어난다는 기록은 '공덕가'의 압축된 시적 표현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다.

“釋良才性滑稽 不累於物 善鄉歌”(『삼국유사』 권4)

良才가 문장에 뛰어난다는 표현과 永才가 향가를 잘 불렀다는 점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善鄉歌”란 표현은 영재가 향가를 잘 불렀다는 가창인으로서의 재질을 지적한 동시에 향가 詩作의 출중한 기법을 지적한 말로 해석된다. 月明師 兜率歌에는 향가의 기능과 본질을 논급했는데 향가의 속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긴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 王曰 既卜緣僧 雖用鄉歌可也...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驚駭吹紙錢 飛舉向西而沒...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삼국유사』 권5)

위의 기록으로 보아 향가의 속성과 그 기능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향가는 聲梵이 아닌 순연한 우리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향가는 불교의 전교를 위한 인도의 노래가 아닌 순연한 우리말 노래란 뜻이다. 또한 지은이의 신분 역시 승려나 불교를 믿었던 신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향가의 기능 중에서 특히 제의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죽은 이의 西昇을 기구하는 齋歌로서의 면모가 있다. 즉,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무하여 심판자의 자비를 비는 齋禮에서 향가가 불러진 것이다. 불교의 내세, 정토사상을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셋째, 향가는 신라 사람들 사이에 널리 불려졌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향가를 숭상한 사람이 많았음을 강조하였다. 이로 볼 때 향가는 신라 일대에 크게 성했으며 신라인들로부터 애창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향가는 『詩經』의 頌과 같은 노래라 하였다. 이는 종묘의 제사시라든가 또는 美德을 칭송하는 뜻을 내포한 노래가 향가란 것이다.

다섯째, 향가가 지닌 法力의 일면이다. 노래를 불렀더니 紙錢이 서로 날아갔다든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귀신까지 감동케 하였다는 점은 향가가 지닌 불교신앙의 한면을 보여준 실례라고 하겠다.

이상의 『삼국유사』의 기록은 향가라는 노래가 지닌 시가로서의 기능을 설명한 동시에 작품으로서의 미의식을 규정한 기록들이다.

②「균여전」의 기록

『균여전』의 [普賢十願歌]와 『삼국유사』의 향가는 사녀가로서의 同質的인 요소도 있지만 이질적인 면도 많다.

균여향가는 균여란 한 사람에게 의하여 지어졌을 뿐 아니라 이 노래의 바탕이 된 내용은 『화엄경』 권44 『華嚴別行疏』에 있는 내용을 노래로 부른 것으로 佛의 공덕문을 이룩하고자 하면 十種大行願을 닦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若欲成就此功德門 應修十種大行願”

(大方佛廣華嚴經 普賢行願品疏 一卷 并序 14張)

‘보현십원가’ 11수는 열 가지의 보현보살의 行願에다 ‘총결무진’의 한 수를 덧붙인 것이다.

균여의 향가는 단일한 주제와 목적에서 지어진 偈頌과 같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향가와는 구별되기도 하나 『삼국유사』의 향가 역시 불교신앙을 담고 있다는 점, 詞腦 詩形을 띤 작품도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두 문헌에 실린 향가는 동질적

인 면이 있다.

『삼국유사』에 비해 『균여전』에는 비교적 향가 자체에 대한 논급이 구체화되어 있어 이 노래의 본질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균여전』에서는 '보현십원가'를 詞腦歌라고 불렀으며 그 이외에도 균여는 향가를 더 지었던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균여는 향가를 잘 지은 이로도 표기되어 있다.

“師之外學 尤關於詞腦 依普賢十種願王著歌一十一章” (『균여전』, 가행화 세분)

균여는 불교 이외에도 詩로서 詞腦를 잘 지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보현십원가'는 그 중 하나란 뜻이다.

靈通寺의 白雲方を 重修할 때 지은 노래라든가, 沙平郡의 那必及干的 병고를 치유한 노래 등은 均如가 또 다른 향가를 지었다는 실례이다. 균여는 불교의 승려로서 또는 당대의 歌人, 詩人으로서 훌륭한 재주를 갖춘 인물임을 『균여전』에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균여전』에서는 詞腦란 世人들이 유희와 오락으로 삼는 도구라 하였다.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란 '사뇌'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불렀고, 즐겁게 부르기 위한 노래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불교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광포하기 위해 노래라는 도구를 빌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향가는 누구나 쉽게 외워 부를 수 있도록 짜여졌으며 그 속에 유락의 즐거움이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로 불렀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대중성과 노래를 통한 전교를 강조한 말이다. 대중 전교를 위해 향가는 통속적인 기법을 동원했던 것이다.

알기 쉬운 가까운 곳의 사실들을 들어 생각해 내기 어려운 깊은 이치를 깨치도록 하기 위해 지은 것이 향가인 것이다. 향가를 『균여전』에서는 거친 노래(荒歌)라 일렀다. 이 말의 뜻 역시 世人戲樂의 속성을 설명한 것인데, 곧 향가는 우리말로 불린 노래라는 점은 향가의 대중성, 세속성, 그리고 口誦의 적합성을 지적한 표현

이다. 향가는 원래 글로 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입으로 불려지고, 이것을 염송하고 외움으로써 원하는 바 인연을 얻을 수 있었던 노래였다.

향가의 수사기법을 통찰함에 있어 생각하여야 할 점 중 하나는 口誦가요로서의 속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란 점에서 이 詩가 지니는 특수한 기법이 있고, 문자로 창작된 시와는 처음부터 유별되는 점이 있다. 향가는 노래로 불려질 것을 전제, 예상하고 씌어진 詩의 작품이다. 향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대중 전체가 부를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향가는 다른 어떤 시적인 작품도 따를 수 없는 대중적 성격을 가졌으며 이 노래를 통해 삶의 전부를, 또는 신앙 생활에서 얻어진 신념과 기원을 토로한 것이다.

“世人戲樂之具”, “右歌播在人口”, “欲笑誦者則結誦願之因”, “口授此願王歌勸令常讀” 등 『균여전』의 표현은 향가는 노래로 불려질 것을 예상해서 씌어진 詩의 作品임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 널리 불린 향가 작품을 王命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修集)하여 『三代目』이란 두루마리 문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 元曉 不羈條의 無碍戲 역시 포교의 방법으로 향가를 이용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홍기문(1956)은 무애회에 대하여,

“불교도 중의 일부는 불교의 보급을 위해서 재래의 음악을 리용함이 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직접 그런 정책을 실행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삼국유사』 四권 ‘원효불기(元曉不羈)’에서는 그러한 불교도의 대표 자로서 원효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선전을 위해서 재래의 노래를 응용한 데는 원효보다도 좀 더 앞서서 실상 량지의 오라가가 있다”
(홍기문, 『향가해석』, 1956, pp48-49)

향가는 노래로 불리기 위해 지어진 詩이므로 이 노래의 형식은 애초부터 詩로

지어진 작품과는 다르다.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짜여진 詩形이다. 반복이 있고 절구에 차사를 두고 있고, 크게 3단으로 되어 있다. 민요의 구성 단락을 두는 점은 오늘날 시조의 가락과 같은 흐름을 지니고 있다.

『균여전』에서는 鄉歌의 형식을 三句六名으로 밝혔다.

이 종결구 앞의 차사(三句六名)는 우리 나라 시형에 있어 전통적인 구조로 후대 고려의 시가나 시조 또는 오늘날의 시에까지도 내려온다.

『균여전』에서는 향가의 시형이 매우 독특한 우리 나라 고유의 시형임을 강조하였는 바 이를 예증기 위해 唐詩의 시형을 끌어들이어 대비시켰던 것이다.

향가는 당시와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 짜여졌다는 시의 形式美를 강조하였다.

“八九行之唐序 義廣文豐 十一首之鄉歌 詞清句麗 其爲作也 呼稱詞腦 可欺貞觀之詞 精若賦頭 堪比惠明之賦 而唐人見處於序外以難詳 鄉土聞時就歌中而易誦 皆沾半利 各漏全功” (『균여전』 譯歌現德分)

최행귀는 향가의 표현미를 일러 詞가 맑고 句가 곱다고 했으며 唐나라 초기 詩와 견주어도 손색없다고 극찬했다.

한편 혁련정은 譯歌現德分에서 최행귀의 한역 향가의 아름다운 번역을 칭찬해 “밝은 달, 맑은 바람”(郎月清風)이라 표현, 천하에 그 문채를 빛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향가의 아름다움은 외국(중국)에까지 떨쳤던 것이다.

향가의 수사기법은 『삼국유사』에 실린 14수와 『균여전』의 ‘보현십원가’ 11수를 통해 당시 신라인의 시적 인식 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흔히 쓰인 상징, 은유, 의인, 돈호법을 통해 대체로 경험 사실이나 감정을 자연 세계와 조화 연결시켜 그 同一性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불교라는 종교와 연관되어 초인간적이고 초월자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향가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균여전』의 향가는 그 제작 의도에 있어 불경의 교훈성을 지닌 목적시이지만 시

자체로서의 상상력도 갖추고 있다. '法輪歌' 등은 창의적이고 탁월한 수사 기법을 갖춘 서정시가로서의 표현 구조를 지니고 있다.

VII. 맺는 말

신라 사람들은 향가를 숭상했고, 그런 연유에서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을 엮어 내었다고 한다. 만약, 『삼대목』이 알려진다면 작품의 수 만으로 보아도 일본의 옛 노래인 만엽집과 견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지금 『균여전』, 『삼국유사』 所傳 노래만을 볼 때 향가문학은 이야기와 노래로 그 구성의 틀이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야기와 노래의 대부분은 불경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불교를 弘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향가문학을 알리는데 앞장 선 사람들이란 불교의 승려들이나 신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향가는 우리말로 불리고 적혔으며 형식 또한 唐詩와는 다른 우리 시가만의 독특한 시형으로 되어 있어 우리의 최초의 옛 노래라 할 수 있다. 향가는 후대에 계승되면서 고려시가, 조선조의 시조, 가사에까지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우리시가 문학에서 차지하는 향가의 자리는 우뚝하다.